당신은 테니스 品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스포츠에는 매너, 에티켓이 존재한다. 그중 테니스는 신사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예의범절과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다. 13세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왕실에서 '주드폼'이라 불리며 시작된 테니스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룰이 약간 수정되었을 뿐 규범과 전통을 아직도 대부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진상'과 쉽게 마주한다. 선수들과 동호인이 꼽은 테니스 코트 속 상식 이하의 비매너 사례를 공개한다. 혹시 내가 '진상' 중 한 명은 아닌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글_ 이은미 기자

풋폴트도 룰이다

풋폴트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20대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했어요. 저는 당시 풋폴트를 밥 먹듯이 하는 상대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뭘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지적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풋폴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풋폴트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매너가 장착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심각성을 느꼈던 하루였어요.

경기할 때도 웃어른 공경?

아직도 '웃어른 공경식'의 테니스를 해야 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요. 얼마 전 50대 남성분들과 복식 경기를 했어요. 강한 스트로크로 공격했는데 그 공을 왜 전위에 있는 자신에게 보내냐고 화를 내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제가 전위에 보낼 때는 그분이 잘 받을 수 있게끔 쳐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겸허하게 인정하는 법부터 배워야

'라인 시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호인 대회에서 라인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이 뛰는 실업 대회에서도 일어난답니다. 실업대회 같은 경우는 1, 2회전 혹은 3, 4회전까지 심판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라인 시비가 생기기 마련이죠. 공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발뺌하는 건 선수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공 전달도 매너 중 매너

공을 전달해줄 때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연스레 나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개의 공을 한꺼번에 던져준다든가, 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 연습하듯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거죠.